

# 대학생의 성장마인드셋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검증

장우정\*

극동대학교 항공운항서비스학과 교수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Growth Mindset of University Students on Career Adaptability: Testing the Mediation Effect of Learning Flow

Woojung Jang\*

Professor, Dept. of Airline Cabin Service Management, Far East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성장마인드셋과 진로적응성 간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총복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부터 수집한 203개의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SPSS 26.0을 이용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하였고 확인적요인분석을 기반으로 측정모형을 평가한 후 수행한 경로분석은 AMOS 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성장마인드셋은 학습몰입에 직접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beta=.403, p<.001$ ), 학습몰입 역시 진로적응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beta=.393, p<.001$ ). 또한 성장마인드셋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성장마인드셋이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학습몰입이 필수적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진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성장마인드셋 함양과 함께 학습몰입 환경 구축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키워드** : 성장마인드셋, 진로적응성, 진로 환경, 학습몰입,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Flow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rowth Mindset and Career Adaptability. Based on 203 response data collected from university students, hypotheses were analyzed using SPSS 26.0 and AMOS 26.0 program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Growth Mindset had a direct positive (+) effect on Learning Flow ( $\beta=.403, p<.001$ ), and Learning Flow also had a positive (+) effect on Career Adaptability ( $\beta=.393, p<.001$ ). Also,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rowth Mindset and Career Adaptability, Learning Flow showed a mediating effect. This means that in order for Growth Mindset to affect Career Adaptability, Learning Flow must be considered as essential. To this end, it suggests that it is important to build a Learning Flow along with cultivating a Growth Mindset.

**Key Words** : Growth mindset, Career adaptability, Career environment, Learning flow, 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Woojung Jang(jangwj23@gmail.com)

Received July 23, 2023

Accepted September 20, 2023

Revised August 22, 2023

Published September 28, 2023

## 1. 서론

경제 성장 둔화로 실업률이 높아짐과 동시에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 현상으로 비대면이 활성화 되었으며, 사람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과 효율을 보이는 기계나 AI 기술과도 경쟁해야 하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전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사회의 선배들이 진로나 직업 환경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었지만, 오늘날의 대학생들은 앞선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시시각각 급변하는 진로 환경에서 치열하게 고군분투해야 한다[1].

인간의 성장과 발달 과정 중에서 대학생의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변화하고, 학교에서 직업의 세계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의 시기이다[2]. 그러나 직업 환경의 틀 뿐만 아니라 변화의 속도마저 예측을 상회하여, 이제까지 학교에서 배우고 준비한 환경은 졸업 후엔 이미 과거가 되어버리는 현실 속에서, 대학생들에게 합리적인 진로 선택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더욱이 사회의 변화 범위와 속도에 대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본격적으로 사회를 경험해보지도 못한 대학생들을 무력감에 빠지게 하고 있다. 대학생의 64%가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 등의 부족으로 진로 준비를 아예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021년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급변하는 진로 환경을 마주하는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응 능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3].

최근의 진로 관련 연구들도[4][5][6] 진로 환경 변화 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7]. 기존의 이론들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진로 결정을 위한 개인의 역량 강화와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룬다면, 현재의 진로 이론들은 복잡성, 불확실성, 예측 불허한 환경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능력 개발을 언급하면서 진로적응성(career adaptability)을 중요한 변인 중 하나로 다루고 있다[8]. 변화에 대응하는 적응 능력과, 변화에 대응하며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다양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유무에 따라 진로 개발 및 성장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을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에 성공보다는 실패에 더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인의 능력과 노력, 경험 등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신념인 성장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과제가 주어져도

회피하지 않고 도전하며 실패나 타인의 비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 노력하는 등 예측하지 못한 채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외부 변화에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된다.

Csikszentmihalyi는 자신의 분야에 대한 몰입(Flow)은 성과를 창출하고 자신감, 활력, 자기존중감을 느끼게 한다고 했다[9]. 대학생의 위치에서 학습상황에 몰두하며 즐거움을 얻고, 방해가 되는 요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진로 환경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불확실한 진로 상황을 직면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학습몰입은 대학생 개인이 속해있는 현재의 대학생 생활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10].

지금까지 성장마인드셋은 학습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흔히 발견 되었지만, 진로와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성장마인드셋이 자신의 역량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인지적 신념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성장마인드셋이 내포하고 있는 변화에 대한 의지가 진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인 진로적응성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는 학습몰입이 가지고 있는 행동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학습몰입은 자신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과업을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몰입함으로써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성장마인드셋과 진로적응성 간 관계에서 행동적 특성을 강조하는 학습몰입의 매개영향을 검증하는 것은 진로적응성 증진 및 효과적인 진로 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 2.1 성장마인드셋

성장마인드셋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 경험 등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Dweck이 기존의 암묵적 이론(Implicit theory)을 불변의 속성인 실체 이론(Entity theory)-고정마인드셋과 가변적인 증진 이론(Incremental theory)-성장마인드셋으로 구분하며 구체화되었다[11].

성장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도전적인 과업에 대해서도 기꺼이 수용하며,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역량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을 통한 역량 증진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긴

다. 타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타인의 비판에 대해서도 그로부터 배움이 있다고 여기고 받아들여 노력하므로, 결과적으로 높은 성취를 이룬다. 반면, 고정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도전을 회피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포기하는 양상을 보인다. 능력은 타고나며 노력을 통해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업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장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처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그치게 된다[12]. 선행 연구가 실증하는 결과에서도 성장마인드셋을 지닌 사람들은 고정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13]. 김창규, 김재호(2020)의 연구에서는 성장마인드셋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14]. 박은, 김교현(2015)에 의하면, 성장마인드셋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역량이 노력이나 경험 여부에 따라 증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인지, 정서, 행동 등의 영역에서 더 적응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15]. 따라서 성장마인드셋은 학습몰입의 하부변인인 인지, 정서, 행동의 측면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진로 관련 교육에서 성장마인드셋 함양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3].

## 2.2 진로적응성

Super와 Knasel은 성인의 진로 결정 상황에도 진로 발달이론을 대입할 수 있도록 진로발달이론의 진로성숙 개념을 진로적응성으로 명명했다. 또한 진로적응성을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자신의 상황을 알맞게 대처하는 정도로 정의했다[16]. 그 후, Savickas는 구성주의적 진로이론 관점에서, 진로 발달 과정에서 보여주는 개인의 내재된 특성보다는 환경에 대한 적응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17]. 환경도 개인을 구성하지만, 개인 역시 자신 주변의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진로적응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18]. Savickas는 진로에 대한 관심(concern), 자기조절 능력인 통제(control), 진로와 환경 변화에 대한 호기심(curiosity),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confidence)을 구성요소로 하는 진로적응능력척도(Career Adapt-Ability Scale)를 개발하였다. 또한, 진로적응성을 개인이 예측하고 있는 진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진로나 직업의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유연하게 대

처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능력으로 재정의 했다[19].

대학생의 시기는 전문적인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의 시기이자 동시에, 예비 사회인으로써 사회에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급변하는 직업 환경을 기꺼이 감내하고 도전하며 나아가 자신의 요구에 맞게 직업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현대 사회의 대학생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업이 되었다.

## 2.3 학습몰입

학습몰입이란 Csikszentmihalyi가 1975년 연구에서 소개한 몰입(Flow)의 개념을 학습 내 활동에 대입시킨 것이다[20]. Csikszentmihalyi는 어떤 상황이나 활동에 빠져드는 심리 현상을 몰입(Flow)이라고 정의했으며, 이 몰입의 상태는 주변 상황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활동에 완전히 몰두하는데 그치지 않고 활동의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는 최적의 심리현상으로 확장된다[21]. 또한, 몰입은 대상이나 조직과 같은 객체에 집중하는 것과는 달리 주체인 개인에 집중하는 것이며[22], 학습몰입이란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 개인이 집중과 몰두를 통해 즐거움을 찾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23].

Handelsman 외(2005)는 학습몰입의 구성요소를 세 가지로 나누었으며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학습을 계획하고 구성해 나가는 인지적 몰입, 학습자가 몰입을 하며 느끼는 노력, 의지, 활력, 희열 등의 정서적 몰입, 자신이 세운 목표를 직접 수행해 나가는 행동적 몰입으로 나누었다[24]. Schaufeli 외 (2002)는 학습몰입에 대해 활력, 헌신, 몰두의 세 가지 특징으로 설명했다. 활력은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해결하고자 하는 끈기이고 헌신은 열정, 자신감 및 도전감 등을 나타내며 몰두는 일과 자신이 일체가 되어 시간을 잊은 듯이 느끼는 열중한 상태라고 했다[25]. 이상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습몰입은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과업 목표를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끈기 있고 열정적으로 몰두한다는 데에서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학습 주체자의 기질적 요인인 성장마인드셋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에서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장마인드셋이 학습몰입과 진로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학습몰입이 성장마인드셋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주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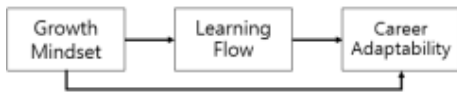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성장마인드셋은 자신의 역량이 노력 여하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생각하여 어려움이 있어도 도전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개인의 신념이다. 성장마인드셋을 지닌 사람들은 학습몰입이 가진 인지, 정서, 행동 등의 영역에서 고정마인드셋을 지는 사람들보다 더 적응적인 모습[15]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성장마인드셋은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학습몰입은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구성한 진로 과업목표에 대해 열정적으로 몰두함으로써 활력을 얻어 나가는 상태이다. 진로적응성은 변화하는 직업 환경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인지를 바탕으로, 과업에 대한 몰두를 통해 활력을 얻을 수 있다면 진로적응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학습몰입은 학습 주체자의 기질적 요인인 성장마인드셋과 진로적응성 간 관계에서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H1: 성장마인드셋은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학습몰입은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학습몰입은 성장마인드셋과 진로적응성 간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 3.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충북 소재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을 모집단으

로 설정하였다. 각 학과의 교수들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해 충분히 사전 설명한 다음 2022년 11월 28일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응답을 회수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03부가 연구에 활용되었다.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남학생 94명(46.3%), 여학생 109명(53.7%)으로 나뉘었고,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1학년이 92명(45.3%)으로 가장 많았고, 2학년은 48명(23.6%), 3학년은 60명(29.6%), 4학년은 3명(1.5%)이었다.

#### 3.3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성장마인드셋을 개인 능력의 정도, 노력 여하, 경험의 유무 등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정의했으며 Dweck(2006)이 개발한 성장마인드셋 4문항을 연구에 활용하였다[26].

진로적응성은 자신의 미래 진로를 위해 예측 가능한 과제에 대해 성실히 준비하고 예측불가능한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한 준비 정도로 정의하고, Maggiori, Rossier, & Savickas(2017)가 개발한 척도를 번안하여 활용하였다[27]. 해당 척도는 모두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하위 변인은 관심, 통제, 호기심, 확신 총 4개로 구체화되어 있다. 학습몰입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주도적으로 구성한 과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몰두하며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느끼는 심리적 상태로 정의했으며[28], Carmona-Halty, Schaufeli, & Salanova(2019)가 기존의 직무몰입척도(UWES-9)를 대학생 맥락에 맞게 수정, 보완해 만든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29]. 본 연구에서 활용된 측정도구는 모두 5점 Likert 척도 형태로 측정하였으며 측정 문항은 Table 1과 같다.

#### 3.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은 SPSS 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AMOS 26.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수준을 확인하였다. 이 후 경로분석으로 연구변인 간의 영향관계 검증을 통해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30].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절차로는 Bootstrapping을 이용하였으며 도출된 값에 대해 bias-corrected 95%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Table 1. Measurement question

V	Measurement Question		
GM		No matter how much intelligence you have, you can always change it quite a bit.	
		You can always substantially change how intelligent you are.	
		No matter what kind of person you are, you can always change substantially.	
		You can always change basic things about the kind of person you are.	
CA	CNC	Thinking about what my future will be like.	
		Preparing for the future.	
		Becoming aware of the educational and vocational choices that I must make.	
	CNT	Making decisions by myself.	
		Taking responsibility for my actions.	
		Counting on myself.	
	CRS	Looking for opportunities to grow as a person.	
		Investigating options before making a choice.	
	CNF	Observing different ways of doing things.	
		Taking care to do things well.	
		Learning new skills.	
	LF	VGR	Working up to my ability.
When I'm doing my work as a student, I feel bursting with energy.			
I feel energetic and capable when I'm studying or going to class.			
DDC		When I get up in the morning, I feel like going to class.	
		I am enthusiastic about my studies.	
		My studies inspire me.	
ABS		I am proud of my studies.	
		I feel happy when I am studying intensely.	
		I am immersed in my studies.	
			I get carried away when I am studying.

Note. V=Variables, GM=GrowthMindset, CA=CareerAdaptability, CNC=Concern, CNT=Control, CRS=Curiosity, CNF=Confidence, LF=LearningFlow, VGR=Vigor, DDC=Dedication, ABS=Absorption

#### 4. 연구결과

##### 4.1 기술통계 분석결과

설문응답자의 성장마인드셋과 학습몰입, 진로적응성에 대해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성장마인드셋의 평균(M)은 3.432, 표준편차(SD)는 .486으로 나타났다. 학습몰입의 경우 평균은 3.581, 표준편차는 .767이었으며, 진로적응성의 경우 평균 4.436, 표준편차 .625로 나타났다.

분석 자료에 대한 정규성은 일변량 왜도(Skew)와 첨도(Kurt)로 확인할 수 있다. 비정규성 문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왜도 3, 첨도 10 이하 [31]이며, 본 연구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일변량 왜도는 절댓값 .085에서 2.098, 첨도는 절댓값 .136에서 7.770으로 나타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M	SD	Skew.	Kurt.
Growth Mindset	3.432	.486	.085	3.515
Learning Flow	3.581	.767	-.315	.136
Career Adaptability	4.436	.625	-.098	7.770

##### 4.2 측정모형 평가: 신뢰도 및 타당도 검토

본 연구의 측정도구가 신뢰도와 타당도를 만족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후 측정모형 평가를 진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전반적 적절성을 측정하기 위해 모형적합도 수치를 확인한 결과  $\chi^2=75.100$ ,  $df=40$ ,  $p=.001$ ,  $NFI=.942$ ,  $TLI=.961$ ,  $CFI=.972$ ,  $RMSEA=.066$ 로 나와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신뢰도 검증에서는 Cronbach  $\alpha$  와 복합신뢰도(CR)를 함께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Cronbach  $\alpha$  의 경우 성장마인드셋 .711, 진로적응성 .931, 학습몰입 .849로, 일반적인 적절성 판단 기준인 .7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2]. 복합신뢰도(CR)의 적합 판단 기준은 .7이며[33], 성장마인드셋 .727, 진로적응성 .967, 학습몰입 .842로 나타나 모든 변인이 내적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타당도 검증에서는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모두 확인하였다. 수렴타당도는 복합신뢰도(CR)수준이 .7 이상이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34]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변인의 복합신뢰도가 .7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는 적절하였다.

**Table 3. Result of measurement model test**

Latent Variables	Observed Variables	$\beta$	t	$\alpha$	CR
Growth Mindset	GM1	.888	-	.711	.727
	GM2	.803	9.751***		
	GM3	.319	4.243***		
	GM4	.445	5.957***		
Career Adaptability	Concern	.849	-	.931	.967
	Control	.857	15.608***		
	Curiosity	.905	17.143***		
	Confidence	.905	17.167***		
Learning Flow	Vigor	.599	-	.849	.842
	Dedication	.969	7.037***		
	Absorption	.713	11.169***		

Note.  $\beta$ =standardized factor loadings, t=t value,  $\alpha$ =Cronbach  $\alpha$ , CR=composite reliability. \*\*\* $p$  < .001

다음으로 판별타당도 검증은, 추출된 분산 평균(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과 변인 간 상관관계 비교 검증법을 활용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진로적응성과 성장마인드셋은 .292, 진로적응성과 학습몰입은 .472 수준에서, 학습몰입과 성장마인드셋의 상관관계는 .455 수준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각 잠재변인의 추출된 분산 평균 제공근( $\sqrt{AVE}$ )의 범위인 최저.659, 최고.937 보다 작았다. Fornell과 Larcker(1981)가 제안하는 판별타당도 검증에 따르면, 변인 간 상관관계의 크기와 각 잠재변인의 추출된 분산 평균 제공근( $\sqrt{AVE}$ )을 비교하여, 추출된 분산 평균 제공근이 큰 경우 판별타당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성 개념들 사이에 판별타당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35].

**Table 4. Result of discriminant validity test**

Variables	CA	GM	LF
Career Adaptability	(.937)		
Growth Mindset	.292**	(.659)	
Learning Flow	.472**	.455**	(.808)

Note. Values in round brackets: root mean variance extracted from each structure; all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 $p$  < .01 level

**4.3 구조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은 앞서 측정모형 분석을 통해 적절하다고 확인된 연구변인들 간의 경로모형 및 유의성 검증에 초점을 두었다. 먼저 구조방정식 모형적합도 지수를 통해 연

구모형의 적합도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chi^2=94.269$ ,  $df=41$ ,  $p=.000$ , TLI=.942, CFI=.922, RMSEA=.080, SRMR=.049 등 모형적합도 지수들이 적합성 판단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Table 5 참조) 성장마인드셋은 학습몰입에( $\beta=.403$ ,  $p<.001$ ), 학습몰입은 진로적응성에( $\beta=.393$ ,  $p<.001$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장마인드셋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학습몰입 수준이 높아지며, 마찬가지로 학습몰입 수준이 높아질수록 진로적응성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Table 5. Result of path analysis**

Path	$\beta$	SE	CR	p
GM → LF	.403	.070	4.754	***
LF → CA	.393	.072	4.653	***
GM → CA	.139	.056	1.728	.084

Note. GM=Growth Mindset, LF= Learning Flow, CA=Career Adaptability,  $\beta$ =standardized coefficient,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 p=p value, \*\*\* $p$  < .001

매개효과는 단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먼저 각 경로계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하여 검증한 후, 영향관계의 강도를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성장마인드셋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경로는  $\beta=.403$  이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학습몰입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경로는  $\beta=.393$ 이었고 이 경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1$ ). 한편, 성장마인드셋은 학습몰입이라는 매개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beta=.139$ ,  $p=.084$ ), 성장마인드셋이 학습몰입을 거쳐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간접)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기 때문에( $\beta=.158$ ,  $p<.01$ ) 학습몰입은 성장마인드

**Table 6. Result of mediation effect**

	GM			LF		
	DE	IDE	TE	DE	IDE	TE
LF	.403***	-	.403***	-	-	-
CA	.139	.158**	.297*	.393***	-	.393***

Note. GM=Growth Mindset, LF=Learning Flow, CA=Career Adaptability, DE=direct effect, IDE=indirect effect, TE=total effect. \* $p$  < .05, \*\* $p$  < .01, \*\*\* $p$  < .001

셋과 진로적응성 간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성장마인드셋이 진로적응성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성장마인드셋과 학습몰입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성장마인드셋과 학습몰입의 관계를 검증하여 대학생의 효과적인 진로 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인 진로적응성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전하며 노력하는 성장마인드셋의 기질적 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내재적 동기요인인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연구를 위해 충북지역의 4년제 대학교 학생들로부터 203부의 설문 응답을 받았으며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성장마인드셋은 학습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었다( $\beta=.403, p<.001$ ). 성장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하며 본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스스로 과업을 구성하여 몰두하고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는 학습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습몰입은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었다( $\beta=.393, p<.001$ ). 학습몰입도가 높은 학생은, 자신이 속한 환경을 인지하고, 미래 진로에 대한 과업을 스스로 구성하며 몰입해 나간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해 볼 수 있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학습몰입도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살펴보았다. 성장마인드셋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이 매개변수로 투입될 때, 성장마인드셋으로부터 진로적응성으로 가는 직접경로 값은 학습몰입이라는 매개변수로 인해 유의하지 못했다( $\beta=.139, p=.084$ ). 그러나, 성장마인드셋이 학습몰입을 통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p값은 .002로 ( $p<.05$ ) 유의하였다. 따라서 학습몰입은 성장마인

드셋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본 연구는 개개인의 기질적 성향으로 볼 수 있는 성장마인드셋이 인지와 정서, 행동적 측면 등으로 구성된 학습몰입을 매개로 진로적응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몰입 관련 연구들은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자기 효능감 등의 개인의 내재적 특성과 함께 학습몰입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의 연구가 많았다. 본 연구는 학습몰입에 대한 적용 범위를 학업적 영역으로부터 대학생의 사회 진출의 의미인 진로 및 직업의 영역에 까지 확장시켰다. 학업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상담이나 지도 측면에서도 학습몰입이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학습몰입이 매개변수로 투입되었을 때 성장마인드셋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와 결과도출된 것은 개인의 기질적 특성인 성장마인드셋보다 상대적으로 후천적 개발이 용이한 활력, 몰두, 헌신 등을 특성으로 하는 학습몰입이 훨씬 더 두드러진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을 찾아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진로적응성을 증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해 성장마인드셋의 기질적 영향에 학습몰입의 인지, 정서, 행동적 요인이 모두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하겠다. 따라서 대학생들 상대로 하는 효과적인 진로 교육 방안은, 학습몰입의 환경이 조성된 상태에서 성장마인드셋을 함양할 수 있는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제한점은 하나의 대학 내에서 모집단이 추출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논문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추후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공별로 분류 검증한다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진로 지도에 더욱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W. J. Jang (2023), Study on the Influence of Growth Mindset of University Students on Occupational Engagement: Testing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Adaptability, *Journal of Industrial*

- Convergence*. 21(3), 49-56,  
DOI : 10.22678/JIC.2023.21.3.049
- [2] D. E. Super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Vol. 195). New York ; Harper & Row.
- [3] H. M. Kim & A. R. Choi, (2022),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rowth Mindse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Science*, 25(1), 129-144.  
DOI : 10.55586/kewms.2022.25.1.129
- [4] H. J. Park (202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Environment and Grit and Career Behavior: COVID-19 Pandemic,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3(3), 789-802. DOI : 10.22143/HSS21.13.3.56
- [5] Y. Y. Lee (2021), The Longitudinal study of Vocational identity of Emerging Adults: the relationships among Vocational identity, Individual Differences, and Career Adaptation,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 [6] Y. N. Seo (2023), The Moderating Effect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Career Adaptability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7] J. Y. Kim & J. K. Tak (2023), The Mediating Effect of Cognitive Flexibility on the Emotional Intelligence and Career Adapt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14(3), 1707-1722.  
DOI : 10.22143/HSS21.14.3.118
- [8] M. H. Na (2018), Theoretical Consideration on the Concept of Career Adaptability and Application to Career Counseling,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 [9] Csikszentmihalyi, M.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HarperCollins.
- [10] H. S. Lee (2023),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Reflective Learning on Occupational Engagement and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Flow, *The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23(2).  
DOI : 10.5392/JKCA 2023.23.02.564
- [11] Dweck, C. S., Chiu, C. y., & Hong, Y. y. (1995). Implicit theories: Elaboration and extension of the model. *Psychological Inquiry*, 6(4), 322-333.
- [12] A .L. Duckworth, (2006). Intelligence is not enough: Non-IQ predictors of achiev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ennsylvania).
- [13] J. H. Park,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Change-Oriente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f A Enterprise Employee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Growth Mindset,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 [14] C. G. Kim & J. H. Kim (2020). Mediation Effects of G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rowth Mindset and Career Matur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2), 945-968.
- [15] E. Park, K. H. Kim (2015). Development of the Learning Goal Orientation Promotion Program and it's Efficacy, *Journal of Social Science*, 26(1), 227-250.  
DOI : 10.16881/jss.2015.01.26.1.227
- [16] Super, D. E., & Knasel, E. G. (1981). Career development in adulthood: Some theoretical problem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ing*, 9, 194-201.
- [17] Savickas, M. L. (1997). Career adaptability: An integrative construct for life-span, life-space theo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 247-259.
- [18] C. Y. Jeong (2021), The Effect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n the Occupational Engagement: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Adaptabili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Network Type, (Master thesis, Chung-Ang University).
- [19] Savickas, M. L., & Porfeli, E. J. (2012). Career Adapt-Abilities Scale: Construction, reliability, and measurement equivalence across 13 countr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 661-673.
- [20] K. T. Oh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Satisfaction and Learning Flow of the adult learners in lifelong education center of A University, (Master thesis, Korea University).
- [21] I. B. Seok, (2008) Analyzing Characters of the Learning Flow, *Journal of the Education Technology*, 24(1), 187-212.  
DOI : 10.17232/KSET.24.1.187



- [22] S. J. Jeong (2014), The Effects of Unemployed Vocational Trainees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Training Program Characteristics, Learning Flow, and Career Planning on Employability, (Doctoral De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23] H. J. Lim, (2023) Analyzing Characters of the Learning Flow,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4(2), 149-181.  
DOI : 10.18612/cnujes.2023.44.2.14
- [24] Handelsman, M. M., Briggs, W. L. Sullivan, N., & Towler, A. (2005). A measure of college student course engage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 98(3), 184-191.
- [25] Schaufelo, W. B et al, (2002)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5), 464-481
- [26] Dweck, C. S. (2006). *Mindset: The new psychology of success*. New York, NY: Ballantine Books.
- [27] Maggiori, C., Rossier, J., & Savickas, M. L.(2017). Career adapt-abilities scale-short form(CAAS-SF) construction and valida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5(2), 312-325.
- [28] Schaufelo, W. B et al, (2002)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5), 464-481
- [29] Y. S. Jo, A. J. Hong, and C. Y. Jeong(2020), A Psychometric Investigation of the Utrecht Work Engagement Scale-9 Using the Rasch Measurement Model, *Journal of Competency Development & Learning*, 15(1), 111-139.  
DOI : 10.21329/khard.2020.15.1.111
- [30] J. C. Anderson & D. W. Gerbing.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 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53-460.
- [31] R. B. Kline.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32] J. C. Nunnally. (1978), *Psychometrictheory*, Ney York : McGraw-Hill.
- [33] J. F. Hair, W. C. Black, B. J. Babin, R. E. Anderson, R. L. Tatham.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Pearson Education International.
- [34] J. C. Anderson & D. W. Gerbing.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 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53-460.
- [35] Fornell, C., & Larcker, D. F. (1981).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장우정(Woojung Jang)

[정회원]



- 2010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영어학과 (영어학 석사)
- 2013년 2월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 박사)
- 2011년 3월~현재 : 극동대학교 항공운항서비스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지식경영, 항공경영, 마케팅
- E-Mail : jangwj23@gmail.com